



“봉사 공연이 필요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”  
- 문화의 날의 들기 노래 공연 봉사자 최인철 씨



“약국이 아니라 반찬가게냐고 묻곤 해요”  
- 무료 반찬 급식 지원 봉사 노은영 씨



“깨끗하게 빈 도시락이 가장 큰 행복 아니겠소”  
- 무료 도시락 배급 봉사 강영준 씨



“미소만큼 좋은 희망은 없다고 생각해요”  
-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지원 봉사 안기순 씨



# 나누고 더하는 즐거움을 아는 당신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

“베푼다는 맘으로 시작했는데 지나고 나니 받은 게 더 많은 거 같아요”  
오랫동안 봉사를 펼쳐오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.  
그 마음을 본받아 세상 곳곳에 나눔의 소중함을 퍼뜨리는 날개가 되겠습니다.

